

유럽축구 명가들 “이변은 없다”



레알·첼시·아스널 등 챔스리그 본선 연승 행진

잉글랜드와 스페인, 독일의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전통 명문팀들이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에서 이번을 허용하지 않은 채 호쾌한 2연승으로 정상 도전의 밑거름을 차실히 쌓았다.

UEFA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우승(9회)에 빛나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29일(한국시간) 새벽 프랑스 오세르의 아베 데상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오세르(프랑스)와 대회 G조 2차전에서 후반 36분 외질의 크로스를 받은 디 마리아가 결승골을 뽑으면서 작전이 맞아떨어졌다.

잉글랜드의 ‘명가’ 첼시와 아스널도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첼시는 이날 영국 런던 스템퍼드브리지에서 치러진 마르세유(프랑스)와 F조 2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7분 수비수 존 테리의 선제골에 이어 전반 28분 마르세유 서비스 스테판 음비아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은 폐널티킥을 달라라 아넬카가 추가골로 만들어 2-0 승리를 거두고 2연승으로 조 1위를 지켰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야阏스(네덜란드)를 2-0으로 꺾었던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승리를 거두고 2연승으로 조 2위를 쟁이며 AC밀란(1승1

무·승점 4)을 누르고 C조 선두로 나섰다. 전반전을 득점 없이 마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13분과 후반 29분에 메수트 외질과 디 마리아를 차례로 그라운드에 내보내 반전을 노렸고, 후반 36분 외질의 크로스를 받은 디 마리아가 결승골을 뽑으면서 작전이 맞아떨어졌다.

잉글랜드의 ‘명가’ 첼시와 아스널도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첼시는 이날 영국 런던 스템퍼드브리지에서 치러진 마르세유(프랑스)와 F조 2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7분 수비수 존 테리의 선제골에 이어 전반 28분 마르세유 서비스 스테판 음비아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은 폐널티킥을 달라라 아넬카가 추가골로 만들어 2-0 승리를 거두고 2연승으로 조 1위를 지켰다.

또 H조의 아스널도 과르티잔(세르비아)과 원정 2차전에서 전반 15분 안드레이 아르사빈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마루안 사마크와 세바스티안 스킬라치의 연속골이 이어지며 3-1로 승리해 기분 좋은 2연승을 쟁겼다.

한편 샤크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와 스포르팅 모스크바(러시아)도 ‘빅클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2연승 행진을 펼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아스널과 H조에서 경쟁하는 샤크타르 도네츠크도 브라가(포르투갈)와 원정 2차전에서 3-0 원승을 하고 2연승으로 아스널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밀려 2위로 올라섰다.

F조의 스타르타크 모스크바도 MSK질리나(슬로바키아)를 3-0으로 제압하고 2연승으로 첼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골 득실에서 뒤져 2위가 됐다.

/연합뉴스



U-17 여자월드컵대표 선수들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그룹 사진에 축하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두렁 잔디 놔두면 몰수패”

아 챔스리그 4강전 앞둔 탄천구장 심하게 훼손

AFC “운동장 보수해야 경기치른다” 성남 경고

아시아 프로축구 상장을 노리는 성남 일화가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논두렁 잔디’를 그대로 놔두면 몰수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아 체면을 구겼다.

29일 성남 구단에 따르면 AFC는 전날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성남이 알 사밥(사우디아라비아)과 2010 AFC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홈 경기를 제대로 치를 만한 그라운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회 규정에 따라 몰수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통보해 왔다.

대회 4강에서 알 사밥과 싸우게 된 성남은 10월 6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차전을 치르고, 같은 날 20일 훈련장인 경기도 성남 탄천종합운동

장에서 2차전을 벌인다.

성남의 훈련장인 탄천종합운동장에는 고온다습한 기후에 악한 양산디가 깔려 있는데 물여울 계속된 무더위와 많은 비를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훼손된 K-리그를 치르면서도 원정팀의 원성이 자자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수원 삼성과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앞두고 경기장을 관리하는 성남시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부랴부랴 보수 작업을 해 40% 정도 새 잔디를 깔았지만, 선수들이 제 플레이를 보여주기에 여전히 모자랐다.

이번 가운데 성남과 경기는 앞둔 알 사밥이 그라운드 사정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AFC는 일단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태

임을 확인할 최근 찍은 그라운드 사진과 보증서를 다음 달 4일까지 보내라고 성남에 요구했다.

이어 대회 규정에 따라 킥오프를 앞두고 경기감독관이 그라운드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홈 팀에는 몰수패가 선언돼 상대팀이 3-0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성남 구단은 다행히 시와 협의가 잘돼 AFC가 요구한 날짜까지는 문제없이 보수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 구단의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겹쳐 시와 협의가 늦어졌지만 바로 보수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잔디 때문에 몰수 패를 당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쁜 일정 와중에도 부브카가 특별히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신바예바에 힘을 실어준 건 자신의 악동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6m14를 넘어 남자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을 보유 중인 ‘인간새’ 부브카 역시 이신바예비치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단한 번도 넘지 못하고 짐을 땀했다.

부브카는 “이제 이신바예바에겐 어떤 문제도 장애물도 없다. 프로다운 열정으로 다시 비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후배 ‘미녀새’의 당찬 날갯짓을 전망했다.

이신바예바는 내년 2월 부브카의 후원하여 열리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국제대회에 서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장대높이뛰기 전설 ‘인간새’ 부브카

“미녀새 이신바예바 다시 날것”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장대높이뛰기의 전설 세르게이 부브카(47·우크라이나)가 29일(한국시간) 한동안 손에서 장대를 놓은 엘레나 이신바예바(28·러시아)

사진)가 다시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올립픽 여자장대높이뛰기 2연속 챔피언 이자 세계기록(5m5)을 보유한 이신바예바는 2009 베를린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2010세계실내선수권에서도 메달획득에 실패해 자존심을 구겼다. 27차례나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던 이신바예바는 지존의 위상이 훈들리자 지난 4월 잠정 휴식에 들어갔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부회장으로 바

쁜 일정 와중에도 부브카가 특별히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신바예바에 힘을 실어준 건 자신의 악동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6m14를 넘어 남자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을 보유 중인 ‘인간새’ 부브카 역시 이신바예비치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단한 번도 넘지 못하고 짐을 땀했다.

부브카는 “이제 이신바예바에겐 어떤 문제도 장애물도 없다. 프로다운 열정으로 다시 비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후배 ‘미녀새’의 당찬 날갯짓을 전망했다.

이신바예바는 내년 2월 부브카의 후원하여 열리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국제대회에 서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감독님은 오빠도 아빠도 아닌 할아버지”

“노랑 머리했다간 다 뜯긴다” 솔직 입담

월드컵 제페 태극소녀들 유쾌한 해단식

월드컵 우승컵을 안고 금의환향한 U-17 여자월드컵 축구대표팀의 해단식이 열린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축구관 계단을 비롯해 대표팀 가족들까지 한 데 모인 이날 해단식은 태극소녀들의 정식 환영연을 겸한 자리였다.

로비 한쪽에 전시된 자랑스러운 팔들은 월드컵 사진을 배경으로 가족들은 활

의 월드컵 사진을 배경으로 가족들은 활하게 웃으며 플래시를 밝혔고, 최덕주 대표팀 감독은 축하 악수를 받느라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옆에 서 있던 조광래 남자 대표팀 감독과 최인철 여자 대표팀 감독 역시 17세 이하 태극소녀들이 이뤄낸 축구 경사에 함께 박수를 터뜨리며 인사를 나눴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어디선가 흰색 셔츠와 짧은 밤색 주름치마로 뽐낸 옛된 소녀군단이 나타났다. 태극소녀들은 U-17 여자축구 대표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마지막으로 뭉치는 만큼 귀여운 여성 학생 정장차림을 하고 환영파티 하객들을 맞았다.

마이크를 잡은 태극소녀들은 그라운드 뿐만 아니라 ‘무대 체질’이기도 했다.

주장 김아름은 이번 대회를 치르며 ‘아버지 리다십’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최덕주 감독이 이날 아침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버지 보단 오빠라는 소리가 들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을 두고 “오빠도, 아버지도 아닌 할아버지 같다”는 말로 웃음을 바다를 만들었다.

또 결승전 당시 베컴의 등장에 몸이 놀랐다며 “베컴과 악수하다 경기 시작도 전에 훈이 다 빠져 버렸다”는 말로 당시 기억을 전했다.

이번 월드컵의 ‘히로인’ 여민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초등학교 시절 노란 머리 스타일을 다시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랬다면 머리 다 뜯긴다”며 좌중을 집중시키더니 이내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단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 나가면 텁스터도 먹고 마음껏 쇼핑도 하고 싶었다”며 다행히 우승해 실컷 먹고 쇼핑도 했다며 17세 소녀들은 운 모습을 보였다.

태극소녀들은 한데 모여 장기자랑도 선보였다. /연합뉴스

주장 김아름은 이번 대회를 치르며 ‘아버지 리다십’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최덕주 감독이 이날 아침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버지 보단 오빠라는 소리가 들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을 두고 “오빠도, 아버지도 아닌 할아버지 같다”는 말로 웃음을 바다를 만들었다.

댄스 뽐내기도 이어졌다. 선수들은 함께 밖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며 무대 위에 선 동료를 응원했다.

동생들의 재롱을 대견한 듯 바라보던 두 언니도 무대에 올라섰다.

U-20 여자대표팀의 주인공 지소연과 김혜리는 “동생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보고 벌써 한물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로 축하의 말을 대신했다.

파마머리를 하고 무대에 선 지소연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예전처럼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기 불편하다. 미용실도 다니고 옷에도 신경쓴다”며 유명세를 인정했다.

이날 해단식은 거창하고 비장한 결의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한 잔치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껏 웃어젖힌 대표팀 선수들은 해단식을 마치고 그토록 그리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광주진주봉도요산악회 청양 산동행 10월 2일(토) 10월 1일(금) ~ 2일(토) 저녁 8시(10월 2일(토) 10시 20분) 열주체육관 출발(광주역) 경유 *다음카페 : 빛고을테마T.010-7619-0559

▲전남산악회 경기 하남 용마산-검단산 10월 3일(일) 7시 광주역 출발(6시10분 열주체육관, 6시15분 운전카자거리, 광양시당구관, 8시 10분 예술관) 후문 *다음카페 : 광주광역시체육회 T.010-3642-5197, 010-7248-6144

▲광주사무총사와의 경기 경남 학연군 가야산 만수굴(10월 2일(일)) 7시 20분 광주역 광장출발(8시 1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 광주도시계획국 T.010-616-6300-0622, 652-5512

▲광주호수축구연맹(10월 2일(일)) 7시 20분 광주호수축구연맹(10월 1일(토)) 8시 1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 광주호수축구연맹 T.010-300-0500-0455

▲광주한진호수축구연맹(10월 2일(일)) 7시 20분 광주한진호수축구연맹(10월 1일(토)) 8시 1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 광주한진호수축구연맹 T.010-311-3580

▲광주한진호수축구연맹(10월 2일(일)) 7시 20분 광주한진호수축구연맹(10월 1일(토)) 8시 1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 광주한진호수축구연맹 T.010-364-2113, 010-5038-9001

▲광주도요산악회 양산 천성산 10월 2일(일) 7시 2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 광주도요산악회 T.010-7247-2629, 010-9707-2514

▲광주금당산악회 가야산 10월 2일(일) 7시 2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 광주금당산악회 T.010-369-2627, 010-9707-2514

▲광주금당산악회 청양 광원 10월 2일(일) 7시 2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 광주금당산악회 T.010-369-2624, 010-9707-2514

▲광주금당산악회 청양 광원 10월 2일(일) 7시 2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 광주금당산악회 T.010-369-2624, 010-9707-2514

▲광주금당산악회 청양 광원 10월 2일(일) 7시 2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 광주금당산악회 T.010-369-2624, 010-9707-2514

▲광주금당산악회 청양 광원 10월 2일(일) 7시 20분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